

碩士學位論文

英才教育 프로그램 選擇에 관한
父母의 情報探索 研究

1998年

漢城大學校 國際通商情報大學院

國際通商情報學科

國際通商情報專攻

都

貞

銀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崔 明 奎

英才教育 프로그램 選擇에 관한
父母의 情報探索 研究

A Study on the Parent's Information Search about
the Choice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Gifted Children

1999年 6月

漢城大學校 國際通商情報大學院

國際通商情報學科

國際通商情報專攻

都 貞 銀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崔 明 奎

英才教育 프로그램 選擇에 관한
父母의 情報探索 研究

A Study on the Parent's Information Search about
the Choice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Gifted Children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6月

漢城大學校 國際通商情報大學院

國際通商情報學科

國際通商情報專攻

都 貞 銀

都貞銀의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定함

1999年 6月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 행동을 하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해 연구·분석하여 부모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부모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며 이에 부응하는 영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의 행동특성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2.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3.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역별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4. 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각 문항별로 빈도분석 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교육 기관 선택과정에서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이 집단들의 (1) 영재 교육 기관 선택시기 (2)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3)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를 빈도분석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사용하여 그 행동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영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시기는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 모두에서 '생후 18개월 - 40개월 사이'에(54.4%, 45.1%) 영재교육기관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χ^2 분석을 한 결과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 면에 있어, 인지도에 관계없이 빈도분석이나 χ^2 분석이나 '친지·주위사람을 통해'(45.5%, 50.7%)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χ^2 분석을 통하여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이나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현재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써 인지도에 관계없이 '교육프로그램 바람직'(59.1%, 57.7%)에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집단들의 (1)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의 만족, 불만족의 이유 (2)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을 빈도분석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만족집단의 경우 그 이유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서'(47.8%), 불만족집단의 경우 그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 '교사·아동의 비율'로 나타났다. χ^2 (chi-square)검증법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을 선택에 대한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간에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가 있다고 본다

(2)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해결 방법으로 만족 집단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37.0%), 하겠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 집단은 '그만 보내겠다'(39.1%)로 나타났다. χ^2 (chi-square)검증법에 의하면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인지도 집단에 따른 만족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인지도는 자녀를 강동, 강남지역은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강동 66.7%, 33.3%, 강남 60.0%, 40.0%) 강서 지역만이 반대의 경우(40.6%, 59.4%)로 나타나고 있다.

(2)영재교육기관의 지역에 따른 만족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 만족의 비율이 불만족의 비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강동 72.7%, 27.3%, 강남 80.0%, 20.0%, 강서 87.5%, 12.5%) 이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만족을 표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것이라 할 수 있다.

(3)영재교육기관 인지도 집단에 따른 만족도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집단은 만족에 88.6%, 불만족에 11.4%, 인지도가 낮은 집단은 만족에 74.6%, 불만족에 25.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지도와 관계없이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만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성별, 학력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질적인 면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교사의 자질 중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남자의 경우 '영재교육전문지식 및 학문적 지식'에 여자의 경우와 학력에 관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교사의 자질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관장의 자질면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운영능력 및 지도력'에 여자의 경우와 학력과 관계없이 '건강한 교육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영재 교육 기관에서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남녀 학력에 무관하게 '전인

적 통합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내용의 중요도면에서도 부모의 대다수가 '사고력 신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대다수가 교사에 대한 아동의 수가 '3 - 4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④부모참여 정도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성 부여와 관련해서 '제한적인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영재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대다수 '창의력'에 높은 인식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영재교육의 바람직한 교육방법으로는 학교교육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소그룹지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과학의 중요성 및 적절한 교육방법에 대한 부모의 대다수가 과학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관한 인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성별 학력과는 무관하게 자연학습의 공간 마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접하기 힘든 '자연학습의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영양 및 건강 면에서 부모의 대다수가 '아동 가까이 위생시설 마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目 次

I. 序論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目的 및 問題	5

II. 理論的 背景

1. 英才性의 概念 정의	6
2. 英才教育 프로그램의 質的 特性 및 重要性	14
3. 英才教育 프로그램에 대한 父母의 期待 및 滿足度	17
4. 消費者 意思決定 過程 및 情報의 要求	19

III. 研究의 方法

1. 研究 對象	25
2. 調査 道具	27
3. 資料의 處理	28

IV. 研究 結果 및 解釋

1. 英才教育機關 選擇過程 分析	29
2. 選擇한 英才教育機關의 滿足度	34
3. 英才教育機關에 대한 地域別 認知度와 滿足度	38
4. 英才教育機關의 質的인 面에 대한 認識	40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49
2. 結論 및 題言	54
3. 研究의 制限點	56

參考文獻	57
------	----

英文要約(English Abstract)	59
------------------------	----

부 록	61
-----	----

表 目 次

〈표 III-1〉 연구 대상자 수	25
〈표 III-2〉 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26
〈표 III-3〉 질문지 구성 내용	27
〈표 IV-1-1-①〉 영재교육기관 선택시기	29
〈표 IV-1-1-②〉 인지도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선택시기	30
〈표 IV-1-2-①〉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	31
〈표 IV-1-2-②〉 인지도에 따른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	31
〈표 IV-1-3-①〉 현재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32
〈표 IV-1-3-②〉 인지도에 따른 현재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33
〈표 IV-2-1-①〉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	34
〈표 IV-2-1-②〉 만족, 불만족 집단에 따른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	35
〈표 IV-2-2-①〉 선택한 영재교육 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의 해결 방법	36
〈표 IV-2-2-②〉 만족, 불만족 집단에 따른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의 해결방법	36
〈표 IV-3-1〉 영재교육 기관에 대한 인지도	38
〈표 IV-3-2〉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39
〈표 IV-3-3〉 영재교육기관 인지도의 차이에 의한 만족도	39
〈표 IV-4-1〉 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	40
〈표 IV-4-2〉 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인식	41
〈표 IV-4-3-①〉 바람직한 프로그램	42
〈표 IV-4-3-②〉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내용의 중요도	43
〈표 IV-4-3-③〉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	43
〈표 IV-4-3-④〉 부모참여 정도	44
〈표 IV-4-3-⑤〉 영재프로그램의 아동에의 도움	45
〈표 IV-4-3-⑥〉 영재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교육방법	45
〈표 IV-4-3-⑦〉 영재프로그램에서의 과학의 중요성	46
〈표 IV-4-3-⑧〉 과학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방법	47
〈표 IV-4-4-①〉 물리적 환경	47
〈표 IV-4-4-②〉 영양 및 건강	48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9조(영재교육)의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 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98년3월1일 시행)고 되어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 제14장 제1절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에는 “①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대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98년3월1일 시행)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의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1999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재 조기판별도구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재학교의 설립방안을 검토한다.”(교육부 교육발전5개년 계획 시안 99년3월)고 정책을 제시하면서 영재교육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일찍부터 영재교육의 연구에 주력해왔으며 우리나라의 영재교육 방향에 영향을 주고있는 미국의 정부정책은 어떠한가 알아보자

미국의 영재교육은 주 정부 중심으로, 주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은 획일성을 지양하고 각 주마다 특색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1988년 연방 정부는 주 정부 차원에서의 영재교육 정책을 지원하고자 연방정부 영재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영재교육의 노하우가 일반 아동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주 정부 차원에서는 주 정부 내에 영재교육과를 설치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영재교육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은 정책적 배려를 해 왔다.

미국 연방 정부법을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법조문에 밝히고 있다. “첫째, 영재는 국가의 장래, 안보 및 복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의 인적 자원이다. 둘째, 영재들의 특수 능력을 초 중등학교시기에 개발하지 아니하면 국익에 기여할 영재아의 특별한 잠재력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경제적으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영재들은 발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적절한 교육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넷째, 영재를 위해 개발 실시된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모든 학생들에게 도전적이며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연방정부는 영재들의 특별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국가의 중대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자극하고 필요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 정부, 지역교육관계자는 영재의 조기발굴을 위한 효율적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하여야 한다.”(미국 연방정부법 영재교육관련제정취지)

미국의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체는 1950년대부터 크게 세 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 왔다. 첫 번째의 단계는 특별한 영재적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의 영재를 위한 교육은 영재로 판별된 학생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치중하여 일반 아동과 분리된 특별학급을 운영하거나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정규 교육과정에서 분리하여 영재 집단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과 실천방법은 일반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서 엘리트주의라는 비난을 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영재를 판별하는 것보다 영재 개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진단하여 이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중점을 두어 영재 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체제를 다양하게 개발하였다. 즉, 판별보다는 교육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대두된 것은 영재를 위한 교육과 일반 학생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더 많은 아동들에게 영재교육의 노하우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일반교육과 영재교육의 연계가 강화되어 일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영재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즉, 영재성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재와 일반아동을 구분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판별보다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즉, 영재를 정확히 판별한다는 자체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동 각자의 심리적 특성, 수준, 관심 분야를 진단하고 그들의 특성에 적절한 자극과 도전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부히 제공하고자 노력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석희, “미국 영재교육의 과거와 현재”, 월간꼬망썰, 1998. 12월호)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계 즉 영재적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찾아내어 영재성을 정확히 판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단계로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며 미국과 같이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영재교육 발달과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서울지역에 사설기관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 그러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침서라든가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만큼 부모들이 영재교육을 선택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과연 부모들이 영재프로그램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고, 만약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소유할 수 있다면 성공적으로 소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구에 접하게 된다. 그러면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교육하고있는 기관들은 이러한 정보의 요구에 부응하여 기관을 어떻게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소비자의 입장 즉 부모들과 더불어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Fugua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들이 탁아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소비자 관점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만 소유할 수 있다면 부모들은 성공적으로 소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며, CCR&R 이라는 좋은 탁아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있어서의 지침서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부모들의 소비자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돕도록 하여야 하며, 부모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향상되어 졌을 때 부모들의 탁아선정과 보호의 길을 아이들에게 최대의 것이 된다고 하였다.(Robert W. Fugua, 1991)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은 부모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 행동을 보이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연구, 분석을 해 봄으로써 부모들의 영재교육프로그램 및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부모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 정착과 영재교육개발에 기초자료로 삼고자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일선 사교육기관들의 운영방침 및 지도방침에 대한 더욱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2. 研究 目的 및 問題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기준에 대해 조사·분석해 봄으로써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영재교육의 질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교육하고있는 사교육기관들의 운영방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의 행동특성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2. 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3. 영재 교육 기관의 지역에 따른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4. 다양한 영재 교육 기관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대한 부모들의 탐색은 어떠한가?

II. 理論的 背景

1. 英才性의 概念

교육이란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대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재교육은 영재를 대상으로 한다. 영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재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영재란 넓게 정의된다면 ‘영재성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성에 대한 개념은 영재의 선발은 물론 영재교육의 목적, 내용선정 및 조직, 교수,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매개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아직도 영재성이 무엇이나에 관해 학자들간에 견해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견해의 다양성은 사회과학의 연구에서는 흔한 일로서 연구의 불가능성이나 무용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영재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의를 선택하는 가는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바탕에 근거 한다기 보다는 그 사회, 시대, 문화가 가치롭다고 여기고 우수한 사람들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학 영재교육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과학 분야의 영재교육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분야의 재능이 특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자는 영재는 과학 분야에만 있는가하는 질문을 한다. 영재는 어느 분야에든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영재성을 정의하는 방법이 달라 진다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대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많은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로서 여러 학문분야 중에서도 과학 분야의 영재성을 더욱 필요로 하는 시대이다.

물론 영재성에 관하여 잘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정의를 하는가에 따라 누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참여하지 못하는가가 매우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발 방법에 따라 영재교육의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재의 선발이 잘 이루어지면 영재교육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 데 비하여 선발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재교육의 효과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데 더 많은 시일과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의를 잘 하는 것은 중요하고, 미묘하며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상황에 들어맞을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가 잡힌 영재의 정의는 없다. 영재성을 정의하는 것은 계획적인 모든 프로그램의 주요한 측면이고 그러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재에 관한 정의 중 특히 최근에 제시된 정의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정의들 중에서 미국 문부성의 정의와 조셉 란줄리의 세고리 정의, 타넨바움의 정의, 하워드 가드너의 다지능이론, 펠더슨의 영재성의 정의, 스톤버그의 지능의 삼 요소 이론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재성과 특수재능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가네의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들 정의들은 대체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정의이면서 동시에 서로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쓰기 때문에 두 가지 정의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미국 영재교육 담당 교육가들은 미국 문부성이 1972년에 처음 내놓은 영재의 정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이 정의는 각 주 정부가 제공하는 영재교육 예산이나 각 학교 또는 교육청이 준비한 프로그램 계획서 제1장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정의로 다음과 같다.

“영재는 뛰어난 능력으로 인하여 훌륭한 성취를 할 것으로 전문가에 의하여 판단된 아동이다. 영재들은 자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 프로그램 이상의 변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다. 뛰어난 성취를 할 수 있는 아동들은 다음의 분야에서 이미 성취를 나타내거나 잠재 능력이 있는 아동들이다.

1.일반지능 2.특수 학문 적성 3.창의적 또는 생산적 사고 4.지도력 5.시각적 공연 예술 6.정신운동 능력“

미국 문부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수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즉 1)일반 지능 뿐 아니라 구체적 학문영역과 예술 분야의 재능도 고려한다는 점이다. 2)창의적, 지도자적, 정신운동적 재능에도 관심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3)영재들은 변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4)영재들을 위하여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합리화하였다. 5)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으로서 영재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높은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도록 돕는 것 뿐 만 아니라 사회에 잘 훈련된 창의적 지도자와 문제 해결자를 제공한다는 점으로 명시하였다. 6)잠재능력이 있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이미 높은 성취를 보이지 않는 아동도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1978년에 미국 의회가 이 정의를 수정하였는데, 주요한 변화는 영재 또는 재능 분야에서 정신 운동 능력분야를 없앴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예술적 정신운동능력은 공연 예술 속에 포함될 수 있고, 체능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영재교육의 정의 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그들의 재능을 개발시키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재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조셉 렌줄리는 미국 문부성이 내린 정의의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하였다. 첫째, 사회에 끼친 훌륭한 기여로 인하여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성취동기를 소홀히 한다. 둘째, 제시된 영재성이 나타나는 분야들이 서로 배타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셋째, 이 정의를 사용하는 교육자들은 영재의 정의는 분야별로 정해놓고도, 실제로 영재를 판별할 때는 일반적으로 얻기 쉬운 지능 또는 학교성적만을 이용하게 된다. 렌줄리의 정의는 실제로 사회에 뛰어난 공헌을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음의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높은 창의성, 높

은 과제 집착력, (대단히 높은 필요는 없는) 평균 이상의 지적 능력. 영재이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특성 모두가 뛰어날 필요는 없다. 각 특성이 적어도 백분위 85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한 요인에서는 적어도 백분위 98이상에 속하는 사람을 영재라고 본다.

렌줄리는 지난 수년간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 정의를 수정하지 않고도 잘 유지해오고 있다.

타넨바움(Tannenbaum, 1983)은 “아동에게 있어서의 영재성은 삶의 도덕적,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심미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동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생산하거나 수행할 결정적인 잠재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여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잠재능력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잠재성이 계발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서 5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5가지 요인은 우수한 일반 지능, 특별히 뛰어난 특수적성, 비지적인 촉진제, 환경의 영향, 행운이다. 이 5가지 요인이 오묘하게 합쳐져서 특출한 수행을 낳게 된다고 하였다. 이 정의에서 성인으로서 훌륭한 성취를 하는 데에는 렌줄리가 제시한 요인들 외에 환경의 영향과 행운이 더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육에 대한 노력만으로 영재로 판별된 아동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성취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는 사회 심리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타넨바움(Tannenbaum)은 재능을 크게 네 분야로 구분한 바: 1)희귀한 재능은 주어진 분야에서 주요한 발견이나 발명을 한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2)남아 돌아가는 재능은 주로 예술 분야로서 우리 사회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3)각 분야 별로 할당된 재능은 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특수 고급기능을 말한다.: 4)잘 알려지지 않은 재능에는 실용적인 재능(예: 요리, 정원 가꾸기 등), 즐거움을 주는 재능(속독, 기억술) 더 이상 쓸모 없는 재능(예: 석공),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재능(예: 각종 범죄)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의 재능만을 고려하여 영재성을 논하는 경우가 많으나 타넨바움은 사회 문화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남보다 더 뛰어난 경우는 모두 재능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에 의하여 지능을 분류한 데 비하여, 인간의 신경체계의 어느 부분에 근거를 둔 능력인지에 따라 지능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십 년 중에 제시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이론 중의 하나로 가드너의 중다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이 있다. 가드너(1983)는 문화적으로 가치로우면서도 비교적 독립적인 문제해결 기능의 묶음 7 종류를 찾아내었다. 이 이론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반 지능을 부정하고 인간의 신경체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7가지의 지능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각 지능은 인간의 신경체계의 어느 특정 부분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들로서, 각 지능이 신경체계의 어느 부분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두뇌의 특정 부분의 상해로 인하여 마비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천재 바보 또는 신동들이 주로 나타내는 재능들, 독특한 발달사, 진화의 역사, 실험 심리학적 과제가 제공하는 증거, 심리 측정에서 나타나는 증거 등으로부터 미루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가드너가 제시한 7가지의 독립적인 지(재)능은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육체운동, 개인 내적, 개인 간(사회적)지능으로 나뉘어진다. 각 지능 분야별로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그 분야의 영재로 칭한다고 한다. 각 분야 별 지능은 다른 분야의 지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그 발달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반 지능을 높이는 훈련을 통해서 영재성을 계발하는 방법보다는 각 분야별 재능을 기르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각기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퍼듀 대학의 펠더슨(1985)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재성에 관한 정의를 대폭 수정해 왔다. 초기에는 영재성이 특출한 재능과 능력, 뛰어난 동기, 독특한 자아개념과 지각적 특성, 고급한 창의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재능

과 능력은 다양하여 학문적이며 예술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것으로 다양하게 걸쳐 있다고 하였다.(1985)

그러나 곧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영재성은 네 가지의 주요요소, 즉 일반 지능, 긍정적인 자아개념, 성취동기, 재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다시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재능은 “적성, 또는 지능, 학습된 기능과 지식, 동기-태도-기질 등의 복합체로서, 이들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직업, 전문 분야, 예술, 사업 등의 분야에서 성공을 미리 운명지어 놓는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영재성에 관하여는 “지능, 적성, 재능, 기능, 전문성, 동기, 창의성의 복합체로서 한 개인으로 하여금 문화나 시대가 가치롭게 여기는 특정 분야에서의 생산적인 수행을 미리 운명지어 놓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펠더슨의 정의는 영재성을 재능의 복합체로 정의하여 영재성과 재능을 거의 동의어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정의라면 영재성과 재능을 구분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의문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정보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영재성을 정의하고자 한 학자가 있다. 스텐버그가 제시한 세 요소 이론(Triarchic Theory)에는 인지요소 하위이론, 경험적 하위이론, 상황적 하위이론이 있다. 인지이론 하위이론에서는 지적인 행동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정신적인 기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경험적 하위이론은 이 정의를 더욱 좁혀서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행동으로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정보처리의 자동화라고 정의하였다. 상황적인 하위이론은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실제 환경을 조성하거나, 선택하거나, 주어진 환경에 목적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지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텐버그는 영재성의 형태는 다양하며, 창의성, 지능, 동기를 모두 포괄하는 사건이나 개념보다도 좀 더 광범위한 것으로 본다.(1986)

이러한 정의들은 거의 영재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합의하기 어려운 정의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 중에서 가장 공통된 점은 능력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어떤 정의에서는 지적 영재성 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영재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이미 그 정의 속에 지적 능력만을 영재성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정의에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영재성을 모두 열거하기도 한다.

능력과는 관계없는 요소들을 영재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는 성적, 자아개념, 과제 집착력, 비지적 촉진제, 운수 등이 있다. 일부는 잠재능력을 정의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1%라는 매우 소수의 사람들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어떤 정의에는 15%-20%의 높은 퍼센트를 지적하기도 한다.

여러 정의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재성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계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환경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체계적으로 발달된 특정 적성 분야에서의 능력(Competence)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재능은 인간의 다양한 활동영역 중의 한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통하여 발달된 수행(Performance)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각각의 이론이 포함하거나 다루는 능력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아직 이 분야에서 합의된 바가 없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학자들간에 공통된 점도 많이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재성과 그 영재성이 계발되어 특수재능으로 발현되는 데 관계하는 여러 요인간의 관계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재성이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기는 해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렌줄리, 스텐버그 같은 학자는 그 능력 중에서도 지적인 능력만을 뜻한다. 이 학자들은 이 능력 속에 여러 가지 능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정의 속에 능력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테일러, 가드너, 타넨바움, 가네와 같은 학자들은 각기 조금씩 다른 능력이긴 하지만 사

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 렌줄리, 타넨바움, 펠더슨 같은 학자는 능력 외에 과제집착력, 자존심, 기회 등과 같은 비지적인 요소가 영재의 개념으로서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비지적 요인을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는 학자들이 더 많이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비율로 영재들이 존재한다고 보는지에 관하여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비하여 렌줄리가 각각의 요소에서 상위 15%에 포함되며, 그 중의 한 요소에서는 적어도 상위 2%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모든 영역의 영재들이 전체 아동의 상위 3-5%에 해당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영재학회 추계학술 세미나 및 워크샵, 1997)

2. 英才教育 프로그램의 質的特性 및 重要性

우수한 질의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기자신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능가한다고 하였고, 우수한 프로그램의 요소로는 건강과 안전, 충분한 공간, 발달에 적합한 교구 및 설비, 낮은 교사·유아비율, 부모참여 등을 포함하였다.(전선옥 : 1989:8)

유아교육의 질에 관하여 연구된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 유아교육의 질적 요인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지적하였다. 교사가 유아와 자주 언어적, 교육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의 중요성, 유아가 목적없는 놀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적절한 교사:유아의 비율과 합리적인 집단크기를 유지할 것, 교사가 전문적 경험을 쌓고 균형 있는 훈련을 받는 것 등이다.(박현정, 1992:15)

프로그램의 질에 관계되는 여러 요인들이 유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주로 다음의 요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특성, 교육과정과 물리적 환경의 여러 측면과 효율성, 교육프로그램이 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기숙, 1989 : 298)

이와 같은 연구들 중에서도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요소와 가장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변인은 교사와 유아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특성과 관계된다고 하겠다.

유아교육 교사의 전문적인 훈련정도가 유아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교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교사-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질과 양이 프로그램의 질적 요인과 관계가 깊다고 보고 있다.(박현정, 1992:17)

이와 같은 이론에서 볼 때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일반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아동들과는 다른 영재들에게 주어지는 총체적인 교육 경험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하게, 그리고 높은 수준의 추상성을 가진 교육과정이며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좀 더 빠르고, 깊고, 폭 넓게 학습경험이 교환되는 교육과정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주제를 중심으로 한 학습 : 사고과정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특정 사고과정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과정 중심의 교육과정 : 정보의 습득보다는 사고기술 및 과정의 발달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3)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 학습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제를 중점으로 삼아 학습활동을 전개한다.

(4)개방적인 교육과정 : 학습자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며 개인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러한 반응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학습내용의 수준이나 소재를 제한시키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도전감을 제공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5)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중시 : 학습자는 그들의 기호, 욕구, 능력 등에서 개인차가 크므로 다양한 대안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미국, National State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on the gifted and talented, 1997)

영재교육은 인성·지성의 형성의 80-90%가 완성되는 시기인 초기 영재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기교육을 중요시하며, 자라면서 여러 환경적인 영향으로 회석되기 때문에 연계적 교육이 필요하다.

영재성은 인성·개성의 형성의 80-90%가 초기에 완성되기 때문에 영재성 / 재능을 초기에 발견하여 이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만약에 영재들의 재능과 능력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영재들이 학습에 흥미를 잃어 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이 없는 교과 과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게 될 때, 이들은 미성취 영재아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아개념이 낮거나 소심한 성격을 지닌 경우, 또는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교육과 성취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영재들은 제 능력만큼 성취를 못하고 미성취아가 된다.

이런 미성취 영재의 발생률이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는 영재의 15-50%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그 발생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한국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평준화 정책이 시작된 이래 ‘학력의 하향 평준화’ 현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급에서는 영재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재의 약 85-95%가 미성취아라고 보여진다.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학생의 30%가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학교를 중퇴하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영재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어 영재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적 수준이 비슷한 또래집단과 함께 학습하고 어울려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영재들의 지적 호기심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미성취 영재라고 판정될 경우 사회적·정서적 문제와 취약성이 있는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집중적인 상담 및 부모교육, 그리고 적절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미성취아를 성취아로 전환시켜 주는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3. 英材教育 프로그램에 대한

父母의 期待 및 満足度

인간의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애정과 양육태도, 가정의 분위기, 친구관계 및 사회, 문화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유아기 때의 교육여부에 따라서 성장과 발달이 크게 좌우된다. 이처럼 어릴 때의 교육환경이 개인의 잠재능력 발전과 계발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여러 연구결과가 부모들에게 점차 절실히 인식되어지게 되었고, 특히 이들 중 영재아를 가진 부모들은 인성, 개성, 지성 등의 형성이 조기에 완성되는 영재성 때문에 이에 알맞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영재적 특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요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영재교육과 아동의 영재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영재교육기관의 긴밀한 유대가 우선된다고 하겠다.

한정자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유아교육의 목적이 지적, 예능적인 인성교육에 있기를 기대하였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교사자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유치원의 교육시설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기대하였다. (한정자 1985 : 72~73)

또한 이경자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자질로는 자상하게 돌보아 주는 어머니와 같은 교사를 원하였다. (이경자, 1982 : 75~79)

장기인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의 7개 영역(교재, 교구, 시설, 설비, 교육과정, 교사자질, 교수·학습방법, 학부모와의 관계, 보조지원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7개 영역 중에서 교사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수-학습방법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영역은 교재, 교구와 시설, 설비에 대한 영

역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부모와 교사와의 접촉 및 면담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교재, 교구와 시설, 설비측면은 학부모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장기인, 1993 : 31)

이러한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재, 교구, 시설, 설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학부모와의 관계, 보조지원활동 등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이 영재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消費者 意思決定過程 및 情報의 要求

영재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정책이 미흡한 점 때문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사설기관들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선택에 대한 폭을 넓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부모를 소비자의 관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및 정보의 요구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고자 한다.

1. 消費者 意思決定過程(Consumer Decision Making)

개인소비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변수로는 제품구매사용경험, 가처분 소득, 기호, 사회계층, 직업, 교육수준, 나이, 성별 등 수없이 많다. 소비자행동의 주체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특성을 달리하는 개인 소비자가 된다. 소비자는 어떤 분원적 이거나 구체적인 욕구가 발생하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정보를 찾게된다. 이때 기억 속에 보유한 관련정보를 자연스럽게 회상하게 된다. 소비자가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회상한 정보로써 충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선택대안들로부터 어느 대안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회상한 정보가 의사결정을 할만큼 충분하지 못하면 더 많은 정보를 외부로부터 찾는다. 정보탐색과 동시에 혹은 직후에 이를 바탕으로 선택 대안들에 대한 비교·평가과정을 거쳐 가장 마음에 드는 특정 대안을 선택·구매하고 소비·사용이후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학식·안광호, 1992 : 17).

다음은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 선택의 시기

소비자는 어떤 시점에서 자신의 현재상태와 그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상태간에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되면 그 차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수단간에 대한 상당한 욕구를 갖게된다.

욕구의 환기(need arousal)란, 소비자가 어느 시점에서 불 충족된 욕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매행동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구매 의사결정과정은 환기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의 문제해결과정이므로 욕구의 환기는 문제의 인식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욕구의 환기가 반드시 구매의사결정과정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상당한 수준의 욕구가 환기되었다 하더라도 재정적 능력의 한계, 시간적 제약, 사회적 규범 등이 구매행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특정시점에서 여러 가지 불충족된 욕구(unsatisfied needs/wants, unfulfilled needs/wants)를 지니고 있으나, 많은 경우 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적 능력이 없거나 다른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구매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욕구의 환기는 소비자 구매행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므로 욕구의 환기를 문제의 인식(problem recognition), 그리고 의사결정을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볼 수 있다. 즉, 문제는 욕구를 무엇으로 충족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문제해결은 일단 충족시킬 수단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학식 · 안광호, 1992 : 18).

2)정보의 탐색(Information Search) - 알게된 동기

소비자의 기억 속에는 욕구충족수단과 관련하여 자신의 직접경험이나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획득된 외부정보가 내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는 문제인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회상되며 이를 내적탐색(internal search)이라고 한다.

또, 문제자체가 상당히 어려우며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찾게되는데 이를 외적탐색(external search)이라고 한다. 외적탐색은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는 외적탐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신을 정보에 노출시킨다.

소비자의 외적 정보탐색 노력의 정도에 따라 구매의사결정은 제한적 문제해결(Limited problem solving)과 포괄적 문제해결(Extended problem solving),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해결(Rountinized problem solving)로 구분할 수 있다. 제한적 문제해결은 문제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거나 어느 정도 경험과 정보를 보유하고 회상할 수 있는 경우이고, 포괄적 문제해결은 그 반대경우의 문제해결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어떤 문제해결방식을 절대적으로 제한적 혹은 포괄적으로 이분화 할 수는 없다.

문제해결이 제한적인지 포괄적인지는 결국 탐색정보의 양과 관련된 것인데, 탐색정보의 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관여도(invovement)이다. 관여란, 어떤 대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관련된 정도, 혹은 부여하는 의미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제품군(product class)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보다 많은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관여도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여러 차례의 동일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을 거쳐 그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책을 알고있다면, 문제인식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어떤 제품 혹은 상표를 선택한다(이학식 · 안광호, 1992 : 19-21)

3)선택대안들의 평가(Alternative Evaluation) - 선택한 이유

포괄적 문제해결과 제한적 문제해결 상황에서 소비자는 정보탐색과정에서 그리고 정보탐색 직후에 선택대안들(Alternatives)에 대한 비교 · 평가를 한다. 대안의 평가를 위하여 소비자는 먼저 평가기준(evaluative criteria)을 설정하는데 평가기준이란, 대안들을 비교 ·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명세(specifications)를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는 각 대안에 대하여 속성별로 신념(belief)을 형성하는데 신념이란, 각 대안이 속성별로 어떠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지각(perception)

을 의미한다. 여러 선택대안들에 대한 소비자의 상대적 평가는 평가기준과 이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결과된다. 소비자는 평가기준과 이에 대한 신념의 형성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한 태도(attitude)를 형성한다(이학식·안광호, 1992 : 21).

4)구매(Purchase)

소비자는 선택대안들을 비교·평가하여 자신의 지불능력에 비추어 가장 마음에 드는 대안에 대한 구매의도를 가지고 구매를 하게된다.

소비자는 대개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대안에 대하여 구매의도를 갖고 구매를 하지만, 선호하는 대안이 있고 자신의 가격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더라도 이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와 같이 태도가 구매의도 및 구매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는 태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즉 ‘내가 이 대안을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타인의 평가에 마음을 쓰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의 비교·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선호하는 대안이 있더라도 재정적 상태의 변화, 시간적 이유, 품질 등으로 구매가 포기 또는 연기 될 수도 있는데 차후 그 대안을 선택하느냐의 여부는 구매시기의 연기정도, 당초 선호한 대안에 대한 선호도나 기억정도 그밖에 새로운 대안의 출현 여부 등에 달려있다.

끝으로 소비자는 선택대안의 비교·평가과정을 거치더라도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비추어 충분히 만족스러운 대안을 발견하기 못하거나 당초에 환기된 욕구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면 구매결정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이학식·안광호, 1992 : 22)

5)구매 후 행동(Post purchase Behavior) - 만족 불만족의 이유

대안에 대한 비교·평가과정을 거쳐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자신의 평가와 지불하는 금액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품성과(product performance)에 대한 기대를 하게된다. 제품구매·사용 이후에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성과가 구매이전의 기대수준과 같거나 더 큰 경우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대해 만족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만족을 할 것이다. 만족과 불만족은 차기의 동일한 의사결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전(word of mouth)에 의하여 타인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구매이후 만족/불만족과는 달리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즉 의사결정은 두 가지 이상의 대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안에 과연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보다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구매후 부조화((Post purchase dissonance)라 부른다.

불만족은 제품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오는데 비해 구매후 부조화는 자신의 의사결정이 과연 잘한 것인가 하는 일종의 의심이므로 불만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소비자는 구매후 부조화를 느끼게 되면 자연히 부조화 해소 내지는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구매후 부조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감소되면 만족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경우 불만족으로 이어질 것이다(이학식 · 안광호, 1992 : 23).

2. 消費者 情報要求의 概念

아트킨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현재 알고있는 지식수준과 그가 희망하는 지식수준 사이에 불일치를 느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보요구(need for information)라고 하였다. 또한 불확실성(uncertainty)은 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데 외적인 정보를 얻게되면 자동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구매선택과정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하여, 현재 알고있는 지식수준과 그가 희망하는 지식수준사이에 느껴지는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가 발생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소비자 정보 요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정보요구는 실제적인 정보탐색 활동을 동기화 시키는 요인이 되며 따라서 정보 탐색 활동이란 소비자 정보요구의 이행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요인(혹은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의 탐색활동은 원래 소비자가 의도한 것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게된다. 이 장애요인에는 소비자 자신들의 문제점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소비자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등도 있지만 보다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소비자 정보제공 환경의 문제점인 정보비용의 문제, 정보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점, 정부의 정보정책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시장구조(market structure)의 특성(경쟁의 정도와 양상)에 의한 문제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정보획득의 장애요인들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시장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정보사이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즉 정보요구·탐색간의 격차, 이를 소비자 정보 갭(consumer information gap)이라 하며, 이것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의 낭비를 가져오고 불만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운용에 있어 비능률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낭비·불만족·비능률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이은희, 1994 : 99-102).

III. 研究의 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영재교육학술원 교육사업단에 가맹되어서 영재교육연구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에서 서울지역에 소재한 10개의 영재교육기관에서 무작위로 3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그곳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조사시기는 1999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 까지 약 5주간 소요되었으며,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에 대한 사항은 <표Ⅲ-1>과 같다.

<표Ⅲ-1> 연구 대상자 수

단위 : 명

구 분	배 부 수	회 수 수	회 수 율 (%)
서 울 강 동	40	33	82.5
서 울 강 남	60	50	83.3
서 울 강 서	40	32	80.0
계	140	115	82.1

<표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0명의 부모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115명(82.1%)의 응답을 받았다. 지역 유형별 회수율은 강동 부모가 82.5%, 강남 부모가 83.3%, 강서 부모가 80.0%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115명이다.

조사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는 <표Ⅲ-2>와 같다.

<표Ⅲ-2>조사대상자의 배경 변인별 분포

변 인		구분 \ 빈도	인원(명)	백분율(%)
부 모	성 별	남	40	34.8
		여	75	65.2
	학 력	고졸이하	5	4.3
		대졸	74	64.3
		대학원졸업	36	31.3
자녀가 다니고 있는 곳		강 동	33	82.5
		강 남	50	83.3
		강 서	32	80.0
자녀의 나이		만 2세이하	11	9.6
		만 3세	28	24.3
		만 4세	33	28.7
		만 5세	19	16.5
		만 6세	11	9.6
		만 7세이상	13	11.3
자녀의 출생순위		첫째	77	67.0
		둘째	34	29.6
		셋째이하	4	3.5
자녀의 성별		남	69	60.0
		여	46	40.0
계			115	100.0

<표Ⅲ-2>의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별 분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하가 4.3%, 대졸이 64.3%, 대학원졸업이 31.3%이다.

부모의 성별 분포는 남 34.8%이고, 여 65.2%이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지역별 분포는 강동 82.5%, 강남 83.3%, 강서 80.0%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영재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자녀의 나이, 출생순위, 성별분포에 대해서는 나이가 만2세 이하가 9.6%, 만3세가 24.3%, 만4세가 28.7%, 만5세가 16.5%, 만6세가 9.6%, 만7세 이상이 11.3%이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67.0%, 둘째가 29.6%, 셋째 이하가 3.5%이며, 성별은 남 60.0%, 여 40.0%이다.

2. 調査道具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관계문헌을 참고로 하여 강충일 ‘초등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실제’(학교급별 영재교육의 실제와 발전방안 97년 한국영재학회 세미나)에서 사용한 질문지와 James C. Stroud (1988)이 ‘아동탁아를 선택할 때 선택되는 질적 기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를 번안하여 사용한 문경희(1990), Robert W. Fuqua(1991)의 ‘Childcare and Referral Programs and Parent’s Search for Quality Childcare’등의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영재교육 전문가와 상의한 후 본 연구에 맞게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표Ⅲ-3>과 같다.

<표Ⅲ-3> 질문지 구성 내용

질 문 내 용	문 항 번 호
영재교육기관 선택과정	1, 2, 3, 4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5, 6, 7, 8, 9, 16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대한 부모의 인식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3. 資料의 處理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각 문항별로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사용하였다.

영재교육기관 선택과 만족도에 대한 행동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집단구분은 영재교육선택 인지도와 선택 후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만족하는 집단·만족하지 않는 집단(불만족 집단)으로 선별하여 각 문항을 빈도 분석 및 χ^2 (chi-square)검증을 하였고, 영재교육기관의 질적인 면에 대한 인식도는 부모의 학력(대졸이하 대학원졸)과 성별(남 여)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빈도분석 및 χ^2 (chi-square)검증을 하였다.

인지도의 기준은 설문지를 통해 영재교육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집단과 조금 알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지도가 높고,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만족도의 기준은 설문지를 통해 부모들이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과 만족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만족, 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였다.

IV. 研究 結果 및 解釋

1. 英才教育機關 選擇 過程 分析

<설문1>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부모의 행동특성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인지도가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이 집단들의 (1)영재교육기관 선택시기 (2)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 (3)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를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사용하여 그 행동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영재교육기관 선택시기

영재교육기관 선택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IV-1-1-①>영재교육기관 선택시기

P(%)

행동특성	집단	전	체	집	단
생후 18개월		20(17.4)			
생후 18개월 - 40개월		56(48.7)			
5 세 - 7세		17(14.8)			
8 세이후		20(17.4)			
기	타	2(1.7)			
계		115(100.0)			

<표IV-1-1-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보통 18개월~40개월 사이에 영재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취학 전에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1-②>인지도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선택시기

P(%)

행동특성 \ 집단	영재교육 인지도 높은 집단	영재교육 인지도 낮은 집단	χ^2
생후 18개월	15(34.1)	5(7.0)	26.13*
생후 18개월 - 40개월	24(54.5)	32(45.1)	
5 세 - 7세	5(11.4)	12(17.0)	
8 세 이후	0(0.0)	20(28.2)	
기 타	0(0.0)	2(2.8)	
계	44(100)	71(100)	

*p<0.05

<표Ⅳ-1-1-②>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χ^2 분석을 한 결과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호, 사회계층, 직업, 교육수준, 나이, 성별 등 여러 특정 지을 수 있는 변수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인지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기준으로 선택시기를 알아본 결과 <표Ⅳ-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빈도 분석한 결과와 χ^2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 생후 18개월-40개월 사이에 5% 수준에서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 교육 기관을 알게된 동기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 교육 기관을 알게된 동기는 <표Ⅳ-1-2-①>과 <표Ⅳ-1-2-②>와 같다.

<표Ⅳ-1-2-①>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 P(%)

행동특성 \ 집단	전 체 집 단
이웃에 위치하여	17(14.8)
영재교육기관의 안내문	14(12.2)
매스컴을 통해	8(6.9)
전화번호부를 보고	1(0.9)
친지, 주위사람을 통해	56(48.7)
직장을 통해	8(6.9)
안내기관을 통해	7(6.1)
기 타	4(3.5)
계	115(100)

<표Ⅳ-1-2-①>에서 알 수 있듯이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는 주로 ‘친지, 주위사람을 통해’(48.7%)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웃에 위치하여’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인지도의 높고 낮음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에 대해 <표Ⅳ-1-2-②>를 통해 알아보자

<표Ⅳ-1-2-②> 인지도에 따른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 P(%)

행동특성 \ 집단	영재교육인지도 높은 집단	영재교육인지도 낮은 집단	χ^2
이웃에 위치하여	5(11.4)	12(16.9)	4.17
영재교육기관의 안내문	5(11.4)	9(12.7)	
매스컴을 통해	4(9.1)	4(5.6)	
전화번호부를 보고	0(0.0)	1(1.4)	
친지, 주위사람을 통해	20(45.5)	36(50.7)	
직장을 통해	5(11.4)	3(4.2)	
안내기관을 통해	3(6.8)	4(5.6)	
기타	2(4.5)	2(2.8)	
계	44(100)	71(100)	

$p < 0.05$

<표Ⅳ-1-2-②>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모들의 정보탐색정도에 대해 알기 위해 그 탐색정보의 양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관여도(관여란, 어떤 대상이 특정한 상황에서 한 개인에게 관련된 정도, 혹은 부여하는 의

미의 정도를 의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Ⅳ-1-2-②>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빈도분석이나 χ^2 분석이나 ‘친지·주위사람을 통해’(45.5%, 50.7%)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이웃에 위치하여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였음이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χ^2 분석을 통하여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이나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현재 영재 교육 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현재 영재 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표Ⅳ-1-3-①>과 <표Ⅳ-1-3-②>과 같다.

<표Ⅳ-1-3-①> 현재 영재 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P(%)

문항	집단	전체 집단
위치가 편리		13(11.3)
교육시간 적절		7(6.1)
시설 설비가 우수		3(2.6)
주위의 평판 우수		4(3.5)
교육비 적절		6(5.2)
원장과 교사의 자질 우수		9(7.8)
교육 프로그램 바람직		67(58.3)
기 타		6(5.2)
계		115(100)

<표Ⅳ-1-3-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기준은 첫째로 ‘교육 프로그램 바람직’(58.3%) 다음으로 ‘위치가 편리’, ‘원장과 교사의 자질우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Ⅳ-1-3-②>인지도에 따른 현재 영재 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P(%)

문항 \ 집단	영재교육인지도 높은 집단	영재교육인지도 낮은 집단	χ^2
위치가 편리	4(9.1)	9(12.7)	4.1
교육시간 적절	2(4.5)	5(7.0)	
시설 설비가 우수	2(4.5)	1(1.4)	
주위의 평판 우수	1(2.8)	3(4.2)	
교육비 적절	4(9.1)	2(2.8)	
원장과 교사의 자질 우수	3(6.8)	6(8.5)	
교육 프로그램 바람직	26(59.1)	41(57.7)	
기 타	2(4.5)	4(5.6)	
계	44(100)	71(100)	

p<0.05

부모들의 정보탐색 과정에서 그리고 정보탐색 직후에 여러 선택대안들에 대해 비교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표Ⅳ-1-3-②>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지도가 높은 집단은 ‘교육프로그램 바람직’(59.1%), ‘교육비 적절’, ‘위치가 편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지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는 ‘교육프로그램 바람직’(57.7%), ‘위치가 편리’, ‘원장과 교사의 자질 우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두 집단 모두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기관 선택사양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인의 연구 ‘유아교육의 7개 영역’(교재, 교구, 시설, 설비, 교육과정, 교사자질, 교수·학습방법, 학부모와의 관계, 보조지원활동)에서 학부모의 만족도는 ‘교사의 자질’을 첫째로 뽑았고 다음으로 ‘교수, 학습방법’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와 영재교육기관 선택 동기와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도 영재교육기관에서도 시설·설비 면에 대해서는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選擇한 英才教育機關의 滿足度

<설문 2> ‘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 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집단들의 (1)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 (2)선택한 영재 교육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을 빈도 분석한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

선택 대안에 대한 비교, 평가과정을 거치고 나서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자신의 선택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되는데 기대에 의해 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는 <표Ⅳ-2-1-①>과 <표Ⅳ-2-1-②>과 같다.

<표Ⅳ-2-1-①>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 P(%)

문항	집단	전 체 집 단
교육내용과 프로그램		49(42.6)
기관장, 교사진의 인적자원		20(17.4)
교사 아동 비율		22(19.2)
시설, 교재 및 교구환경		9(7.8)
교사의 수업 전개		15(13.0)
계		115(100)

<표Ⅳ-2-1-①>에서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42.6%)와 ‘교사 아동비율의 적절’등의 이유를 들 수 있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시설, 교재 및 교구의 환경’(7.8%)와 ‘교사의 수업전개’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1-②>만족, 불만족 집단에 따른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 P(%)

문항 \ 집단	만족 집단	불만족 집단	χ^2
교육내용과 프로그램	44(47.8)	5(21.8)	47.94*
기관장, 교사진의 인적자원	5(5.4)	15(65.2)	
교사 아동 비율	22(23.9)	0(0.0)	
시설, 교재 및 교구환경	7(7.6)	2(8.6)	
교사의 수업 전개	14(15.2)	1(4.4)	
계	92(100)	23(100)	

*p<0.05

<표Ⅳ-2-1-②>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 교육 기관을 선택한 후 만족집단은 만족하는 이유를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서’(47.8%), ‘교사 아동 비율의 적절’(23.9%)로 나타나고 있고, 불만족하는 집단은 불만족의 이유를 ‘교사 아동의 비율’ 및 ‘교사 수업전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가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에는 만족하는 반면에, 교육 환경 적인 면에서는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재교육기관을 선택에 대한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간에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만족과 불만족은 차기의 동일한 의사결정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전에 의하여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관에서는 교육 환경 적인 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불만족하는 부분을 만족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의 해결방법

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의 해결방법은 <표Ⅳ-2-2-①>과 <표Ⅳ-2-2-②>와 같다.

<표Ⅳ-2-2-①>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의

해결방법 P(%)

문항	집단	전 체 집 단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42(36.5)
기관장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39(33.9)
그만 보내겠다		31(26.9)
아이에게 미칠 영향 고려하여 그냥 보냄		3(2.6)
계		115(100)

<표Ⅳ-2-2-①>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해결방법으로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36.5%), ‘기관장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33.9%), ‘그만 보내겠다’(26.9%)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2-②>만족, 불만족 집단에 따른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의 해결방법 P(%)

문항	집단	만 족 집 단	불만족 집단	χ^2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34(37.0)	8(34.8)	2.88
기관장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		33(35.9)	6(26.1)	
그만 보내겠다		22(23.9)	9(39.1)	
아이에게 미칠 영향 고려하여 그냥 보냄		3(3.3)	0(0.0)	
계		92(100)	23(100)	

$p < 0.05$

<표Ⅳ-2-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해결 방법으로 만족 집단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37.0%), ‘기관장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35.9%)로 나타나고 있고, 불만족 집단은 ‘그만 보내겠다’(39.1%)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만족 집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려 하지 않고 아이를 그만 보내겠다는 답변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지만 χ^2 (chi-square)검증법에 의하면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 따른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불만족 집단의 기관에 대한 만족하지 못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교육기관 선택 후 만족, 불만족과는 달리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기관이 과연 선택하지 않은 기관보다 나은 것인가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부조화를 느끼는 부모가 그러한 심리적부조화를 긍정적 방향(예를 들면 아동이 교육내용에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거나 등)으로 이끈다면 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서 기관의 운영 및 영재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英才教育機關에 대한 地域別 認知度와 滿足度

<설문 3> 강동, 강서, 강남 지역의 인지도를 조사한 이유는 여러 영재기관들 중 무작위로 선택하여 조사한 지역이지만 지역별 교육열의 차이나 경제적인 차이가 영재교육기관 선택에 있어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영재교육기관에 따른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영재 교육 기관에 따라 인지도·만족도를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역 별 인지도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역별 인지도는 <표Ⅳ-3-1>과 같다.

<표Ⅳ-3-1> 영재교육기관 대한 지역 별 인지도 P(%)

영재교육기관 \ 집단	영재교육인지도 높음	영재교육인지도 낮음	계
강동 지역 교육기관	22(66.7)	11(33.3)	33(100)
강남 지역 교육기관	30(60.0)	20(40.0)	50(100)
강서 지역 교육기관	13(40.6)	19(59.4)	32(100)

<표Ⅳ-3-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를 영재교육기관에 보낼 때 인지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강동과 강남은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66.7%, 60.0%), 강서 지역은 인지도가 낮은 집단이 영재교육을 선택하고 있으나 비율이 세 지역 모두 거의 비슷하다.(40.6%, 59.4%)

(2)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영재 교육 기관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는 <표Ⅳ-3-2>와 같다.

<표Ⅳ-3-2>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

P(%)

영재교육기관 \ 집단	만 족	불 만 족	계
강동 지역 영재기관	24(72.7)	9(27.3)	33(100)
강남 지역 영재기관	40(80.0)	10(20.0)	50(100)
강서 지역 영재기관	28(87.5)	4(12.5)	32(100)

<표Ⅳ-3-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강동, 강남, 강서의 경우 불만족보다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만족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영재교육 인지도의 차이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

영재교육 인지의 차이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표Ⅳ-3-3>영재교육 인지도 차이에 따른 만족도

P(%)

만족여부 \ 집단	영재교육인지도 높은 집단	영재교육인지도 낮은 집단
만 족	39(88.6)	53(74.6)
불 만 족	5(11.4)	18(25.4)
계	44(100)	71(100)

<표Ⅳ-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교육 인지도 차이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인지도 높은 집단은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88.6%의 만족과 5%의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지도 낮은 집단은 74.6%의 만족과 25.2%의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지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대부분 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英才教育機關의 質的인 面에 대한 認識

<설문 4> ‘영재 교육 기관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성별과 학력에 따라 (1)교사자질에 대한 인식 (2)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인식 (3)영재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빈도분석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훌륭한 영재교육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질 요건에
대한 부모의 인식

교사 자질의 조건에 대한 인식은 <표Ⅳ-4-1>과 같다.

<표Ⅳ-4-1>교사자질에 대한 인식 P(%)

문항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영재교육전문지식 및 학문적 지식		14(35.0)	15(20.0)	7.95	19(24.1)	10(27.8)	1.20
풍부한 교육경력		7(17.5)	6(8.0)		8(10.1)	5(13.9)	
아동에 대한 사랑		10(25.0)	22(29.3)		24(30.4)	8(22.2)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8(20.0)	25(33.3)		23(29.1)	10(27.8)	
수업능력 및 수업기술		1(2.5)	7(9.3)		5(1.3)	3(8.3)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표Ⅳ-4-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사자질에 대한 남자의 경우는 ‘영재교육 전문지식 및 학문적 지식’(35.0%), 을 여자의 경우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33.3%)에 많이 답변하고 있다. 또한 대졸이하는 ‘아동에 대한 사랑’(30.4%)에 대학원졸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27.8%), ‘영재교육전문지식 및 학문적 지식’(27.8%)을 교사 자질 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치원 교사의 자질로서 ‘자상하게 돌보아 주는 어머니와 같은 교사’ 즉 ‘아동에 대한 사랑’에 중요도를 둔 이경자의 연구와는 약간

상이한 결과가 영재교육기관의 교사의 자질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χ^2 검증법에 의하면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기관장(운영자)의 자질에 대한 인식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으로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질은 어떠한가에 대한 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표Ⅳ-4-2>기관장의 자질에 대한 인식

P(%)

문항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영재교육전공여부		2(5.0)	8(10.7)	7.46	5(6.3)	5(13.9)	4.22
풍부한 교육경력		6(15.0)	7(9.3)		9(11.4)	4(11.1)	
덕망과 인품		4(10.0)	5(6.7)		7(8.9)	2(5.6)	
운영능력 및 지도력		14(35.0)	15(20.0)		20(25.3)	9(25.0)	
건강한 교육관		9(22.5)	32(42.7)		31(39.2)	10(27.8)	
아이들에 대한 사랑		5(12.5)	8(10.7)		7(8.9)	6(16.7)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표Ⅳ-4-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자의 경우는 ‘운영능력 및 지도력’, ‘건강한 교육관’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와 학력과는 상관없이 ‘건강한 교육관’, ‘운영능력 및 지도력’이 기관장의 자질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기관장의 건강한 교육관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의 경우는 일반교사와는 달리 기관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기관장의 자질요건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영재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영재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아동에게 영재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영재프로그램의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며,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과 내용 중 어느 분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과, 교사와 아동의 비율, 부모의 참여정도, 영재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어떠한 면에 도움을 주는지, 또한 바람직한 교육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바람직한 프로그램

영재아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은 <표Ⅳ-4-3-①>과 같다.

<표Ⅳ-4-3-①> 바람직한 프로그램 P(%)

문항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전인적 통합교육		18(45.0)	43(57.3)	6.94	43(54.4)	18(50.0)	9.74
개별적 흥미와 욕구에 따른 계획		8(20.0)	16(21.3)		18(22.8)	6(16.7)	
특기지도 활동		7(17.5)	3(4.0)		3(3.8)	7(19.4)	
아동의 교과선택허용		2(5.0)	6(8.0)		5(6.3)	3(8.3)	
부족한 면 보충지도		1(2.5)	2(2.7)		3(3.8)	0(0.0)	
다양한 행사		4(10.0)	5(6.7)		7(8.9)	2(5.6)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표Ⅳ-4-3-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성별과 학력과는 무관하게 바람직한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전인적 통합교육’ 그 다음으로 ‘개별적 흥미와 욕구에 따른 계획’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학습’, ‘과정중심의 교육과정’, ‘활동중심의 교육과정’, ‘개방적인 교육과정’, ‘학습자의 자율적인 선택 중시’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질문의 결과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부모들이 바라는 영재교육기관의 이상적인 프로그램인 다양한 행사 위

주의 교육보다는 아동들에게 전인적인 교육과 개별적 흥미와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요구가 서로 잘 어울려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영재교육프로그램의 교과내용의 중요도

<표Ⅳ-4-3-②>영재교육프로그램의 교과내용의 중요도 P(%)

문항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사 고 력	25(62.5)	63(84.0)	7.69	63(79.8)	25(69.4)	1.82
과 학	11(27.5)	7(9.3)		10(12.7)	8(22.2)	
언 어	1(2.5)	2(2.7)		2(2.5)	1(2.8)	
수 학	3(7.5)	3(4.0)		4(5.1)	2(5.6)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 < 0.05$

현재 영재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교과 내용은 사고력, 과학, 언어, 수학 등 4개 영역의 과목을 연령별, 단계별의 프로그램식 학습법을 채택하여 수업하고 있는데 부모들은 4개의 교과목 중 교과 중요도 면에서는 성별과 학력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두 집단 모두 사고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들은 아동이 어떤 특정 분야에 치중하여 발달하기보다는 전체적, 통합적, 능력배양의 발달에 더 중요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영재교육프로그램의 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

<표Ⅳ-4-3-③>영재교육프로그램의 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 P(%)

문항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1 - 2 명	9(22.5)	14(18.7)	4.83	13(15.5)	10(27.8)	3.16
3 - 4 명	20(50.0)	54(72.0)		55(69.6)	19(52.8)	
5 - 6 명	11(27.5)	7(9.3)		11(13.9)	7(19.4)	
7 - 10 명	0(0.0)	0(0.0)		0(0.0)	0(0.0)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 < 0.05$

우수한 영재프로그램이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에서도 성별과 학력에 관계없이 모두 3 - 4명이 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의 소그룹 지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χ^2 분석을 통하여 성별, 학력별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것은 교과 내용의 전달 면에서 아동이 그 내용을 잘 흡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너무 그 비율이 적으면 아동끼리의 유대관계에 의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3~4명 정도의 비율이 이 두 가지 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부모참여정도

부모참여 정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Ⅳ-4-3-④>부모참여정도

P(%)

문항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많은부모 참여기회		8(20.0)	11(14.7)	6.24	18(22.8)	7(19.4)	7.34
제한된 부모참여(수업참관 등)		18(45.0)	51(68.0)		49(62.0)	18(50.0)	
부모참여를 가정통신으로 대체		11(27.5)	10(25.0)		7(8.9)	10(27.8)	
전적으로 교사일임		3(7.5)	3(4.0)		5(6.3)	1(2.8)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위 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별, 학력 무관하게 모두 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참여정도에서 '제한된 부모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 교육기관에 대한 영재교육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리고 χ^2 분석을 통하여 성별, 학력별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⑤영재프로그램이 아동의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가

영재성의 정의 중 렌줄리에 의하면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중력, 평균이

상 지적능력 등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이론을 토대로 본 기관들의 부모들은 영재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어떤 면에 더욱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Ⅳ-4-3-⑤> 영재프로그램의 아동에의 도움 P(%)

문항 \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과제집중력	8(20.0)	11(14.7)	11.61*	14(17.7)	7(19.4)	3.15
높은 지능지수	8(20.0)	2(2.7)		6(7.6)	4(11.1)	
창의력	23(57.5)	57(76.0)		53(67.1)	25(69.4)	
사회성	1(2.5)	5(6.7)		6(7.6)	0(0.0)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p<0.05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성별, 학력별에 무관하게 창의력에 높은 인식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와 여러 영재성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창의성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으나, χ^2 검증법에 의해 성별에 따른 두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⑥영재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교육방법

<표Ⅳ-4-3-⑥> 영재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교육방법 P(%)

문항 \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소그룹지도	16(40.0)	32(42.7)	5.4	34(43.0)	13(36.1)	12.89*
다양한 교재 교구이용	12(30.0)	21(28.0)		26(32.9)	7(19.4)	
수준별 학습	6(15.0)	19(25.3)		17(21.5)	8(22.2)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6(15.0)	3(4.0)		2(2.5)	8(22.2)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 p<0.05

바람직한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소그룹지도를 성별, 학력별에 무관하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교육에서의 보완적 측면을 영재교육에서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별로 나눈 집단에서

는 다양한 교재교구이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교재와 교구의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훌륭한 교재와 교구의 활용에 대해 부모의 관심이 많으므로 기관에서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재와 교구의 구비와 부모들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χ^2 분석을 통하여 남녀집단의 영재프로그램의 바람직한 교육방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학력별 집단에서는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⑦영재프로그램에서의 과학의 중요성

<표Ⅳ-4-3-⑦> 영재프로그램에서의 과학의 중요성 P(%)

문항 \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매 우 중 요	11(27.5)	28(37.3)	1.39	24(30.4)	15(41.7)	2.39
중 요	27(67.5)	45(60.0)		53(67.1)	19(52.8)	
보 통	2(5.0)	2(2.7)		2(2.5)	2(5.6)	
전혀중요치 않음	0(0.0)	0(0.0)		0(0.0)	0(0.0)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과학영재교육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한 국가 정책적인 배려 속에 과학분야의 영재교육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영재프로그램에서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모든 부모가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χ^2 분석을 통하여 성별, 학력별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⑧과학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방법

<표Ⅳ-4-3-⑧> 과학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방법 P(%)

문항 \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실험을 통한 원리이해 교육	14(35.0)	23(30.7)	0.78	28(35.4)	9(25.5)	3.38
문제해결의 과정중심 교육	7(17.5)	15(20.0)		14(17.7)	8(22.2)	
시청각 교육	0(0.0)	1(1.3)		0(0.0)	1(2.8)	
통합교육	19(47.5)	36(48.0)		37(46.8)	18(50.0)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과학 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방법으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한 원리이해 교육’이 ‘문제해결의 과정중심교육’이나 ‘시청각교육’ 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모든 교육방법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통합교육이 과학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더욱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χ^2 분석을 통하여 성별, 학력별 집단 모두 과학프로그램의 적절한 교육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대한 인식

①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은 <표Ⅳ-4-4-①>과 같다.

<표Ⅳ-4-4-①> 물리적 환경

P(%)

문항 \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깨끗하고 매력적인 실내환경	7(17.5)	18(24.0)	1.87	16(20.3)	8(22.2)	6.46
다양한 놀이기구 및 설비의 구비	10(25.0)	21(28.0)		26(32.9)	6(16.7)	
특수시설(수영장, 어학실, 강당 등)구비	6(15.5)	6(8.0)		5(6.3)	7(19.4)	
자연학습의 공간 마련	17(42.5)	30(40.0)		32(40.5)	15(41.7)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교육기관의 물리적 환경 면에서는 성별, 학력별과 무관하게 통계적으로 두 집단 모두 자연학습의 공간 마련에 많은 선

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녀에게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자연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영양 및 건강

영양 및 건강은<표Ⅳ-4-4-②>

<표Ⅳ-4-4-②> 영양 및 건강

P(%)

문항	집단	성 별		χ^2	학 력		χ^2
		남	여		대졸이하	대학원졸	
아동가까이에 위생시설 마련		12(30.0)	24(32.0)	4.22	24(30.4)	12(33.3)	1.13
간식 등 식단내용의 부모공개		4(10.0)	13(17.3)		14(17.7)	4(11.1)	
다양한 음식 제공		7(17.5)	19(25.3)		19(24.1)	8(22.2)	
아동들의 의료담당자 유무		10(25.0)	12(16.0)		14(17.7)	7(19.4)	
정기적인 아동들의 건강체크		7(17.5)	7(9.3)		8(10.1)	5(13.9)	
계		40(100)	75(100)		79(100)	36(100)	

p<0.05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재 교육 기관에서 제공되는 영양 및 건강 면에서 성별, 학력별에 관계없이 ‘아동 가까이 위생시설 마련’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χ^2 분석을 통하여 성별, 학력별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에서 위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며, 음료수, 손 씻기, 수건 등이 가까이 제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要約 및 結論

1. 要約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 행동을 하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해 연구·분석하여 부모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과 부모의 요구에 대해 알아보며 이에 부응하는 영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1. 영재 교육 기관을 선택할 때의 행동특성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2. 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3. 영재 교육 기관에 따른 인지도와 만족도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가?
4. 영재 교육 기관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강동, 강남, 강서)에 소재한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영재교육학술원 교육사업단에 가맹되어서 영재교육연구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10개의 교육기관 중에서 3개의 영재교육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곳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115명의 부모들이다.

조사시기는 1999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 까지 약 5주간 소요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윤미선, 1993)’, ‘초등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실제’(학교급별 영

재교육의 실제와 발전방안 97년 한국영재학회 세미나)에서 사용한 질문지와 James C. Stround (1988)이 '아동탁아를 선택할 때 선택되는 질적 기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를 번안하여 사용한 문경희(1990), Robert W. Fuqua(1991)의 'Childcare and Referral Programs and Parent's for Quality Childcare'등의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 영재교육 전문가와 상의한 후 본 연구에 맞게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각 문항별로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및 χ^2 (chi-square)검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 교육 기관 선택과정에서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이 집단들의 (1) 영재 교육 기관 선택시기 (2)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3)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를 빈도분석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사용하여 그 행동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영재 교육기관에 대한 선택시기는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 모두에서 '생후 18개월 - 40개월 사이'에(54.4%, 45.1%) 영재교육기관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인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χ^2 분석을 한 결과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면에 있어, 인지도에 관계없이 빈도분석이나 χ^2 분석이나 '친지·주위사람을 통해'(45.5%, 50.7%)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χ^2 분석을 통하여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이나 영재교육기관을 알게된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현재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써 인지도에 관계없이 '교육프로그램 바람직'(59.1%, 57.7%)에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한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만족하는 집단과 불만족하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 집단들의 (1)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의 만족, 불만족의 이유 (2)선택한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을 빈도분석과 χ^2 (chi-square)검증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의 만족,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는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후 만족집단의 경우 그 이유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이 다양해서'(47.8%), 불만족집단의 경우 그 불만족에 대한 이유로 '교사·아동의 비율'로 나타났다. χ^2 (chi-square)검증법에 의하면 영재교육기관을 선택에 대한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간에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차가 있다고 본다

(2)선택한 영재 교육 기관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해결 방법으로 만족 집단은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37.0%), 하겠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 집단은 '그만 보내겠다'(39.1%)로 나타났다. χ^2 (chi-square)검증법에 의하면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인지도 집단에 따른 만족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영재교육프로그램 인지도는 자녀를 강동, 강남지역은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강동 66.7%, 33.3%, 강남 60.0%, 40.0%) 강서 지역만이 반대의 경우(40.6%, 59.4%)로 나타나고 있다.

(2)영재교육기관의 지역에 따른 만족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 만족의 비율이 불만족의 비율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강동 72.7%, 27.3%, 강남 80.0%, 20.0%, 강서 87.5%, 12.5%) 이는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만

족을 표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것이라 할 수 있다.

(3)영재교육기관 인지도 집단에 따른 만족도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집단은 만족에 88.6%, 불만족에 11.4%, 인지도가 낮은 집단은 만족에 74.6%, 불만족에 25.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지도와 관계없이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만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성별, 학력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질적인 면에 대한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교사의 자질 중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남자의 경우 ‘영재교육전문지식 및 학문적 지식’에 여자의 경우와 학력에 관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교사의 자질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기관장의 자질면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운영능력 및 지도력’에 여자의 경우와 학력과 관계없이 ‘건강한 교육관’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영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정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영재 교육 기관에서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남녀 학력에 무관하게 ‘전인적 통합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교과내용의 중요도면에서도 부모의 대다수가 ‘사고력신장’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교사에 대한 아동의 비율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대다수가 교사에 대한 아동의 수가 ‘3 - 4명’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④부모참여 정도에서 영재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임성 부여와 관련해서 ‘제한적인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영재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부모의 의견은 대다수 ‘창의력’에 높은 인식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영재교육의 바람직한 교육방법으로는 학교교육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소

그룹지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과학의 중요성 및 적절한 교육방법에 대한 부모의 대다수가 과학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합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에 관한 인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성별 학력과는 무관하게 자연학습의 공간 마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가 접하기 힘든 '자연학습의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영양 및 건강 면에서 부모의 대다수가 '아동 가까이 위생시설 마련'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結論 및 題言

본 연구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이 자녀가 다닐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함에 있어서 올바른 소비자 행동과 소비자 기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해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 정보망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영재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로 영재교육기관의 위치 편리성, 주위, 친지, 사람들의 소개 등의 단순한 정보로 인해 선택, 결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다닐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보다 신중히 교육기관을 선택한다면 투자에 비례하는 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자녀교육도 좀더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영재교육기관은 그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토대로, 부모들에게 영재교육의 특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기관의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의 축소 및 시설, 교재, 교구, 환경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영재교육기관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있지만 불만족을 표시한 부모들의 다수가 그 이유를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의 부적절, 시설, 교재, 및 교구 환경의 열악성이라 응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방법으로 우수한 교재의 개발 및 영재개발에 필요한 교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영재아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따라서, 영재교육기관 내의 한 학급당 유아들의 인원 및 교사 대 아

동 비율을 적절히 배려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보충 및 교육적 환경 개선에 대한 운영자의 배려와 동시에 이러한 기관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도 프로그램의 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한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역 특성과 부모들의 요구조건에 맞는 다양한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체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부모의 요구조건에 맞는 다양한 영재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정책적인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국가의 보조가 있어야 함이다.

넷째, 다양한 행사위주의 교육보다는 전인적 통합 교육 및 개별적 흥미육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질적인 면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부모가 전인적 통합교육을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기교육이나 행사위주의 교육에 치우친 영재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이 아닌 아동들의 자연적 발달을 돕는 전인적통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기관의 교사 또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비자 행동 면에서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가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올바른 소비자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정보의 안내서가 현 국내에 없는 관계로 선택과정에 대한 정보 안내서 개발뿐만 아니라 이 안내서를 접한 집단과 접하지 못한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후속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 1)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일부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데는 제한이 있다고 본다.
-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질문지에 의한 것으로써 부모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 3) 조사대상이 한국교육개발원산하 영재교육학술원 교육사업단에 가맹한 영재교육연구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게만 한정되어 자녀를 두고있는 전체 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參考文獻

1. 國內文獻

강충일, 초등학교에서의 영재교육의 실제, (학교급별 영재교육의 실제와 발전 방안 97년 한국영재학회 세미나), 1997.

박명희 · 채정숙, 정보화 시대와 소비자(소비자 정보탐색 유형과 탐색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 소비자학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994.

박현정, 가정환경과 유아교육기관의 질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영재아 지도교사 연수과정, 영재성에 대한 개념정의, CBS 영재교육학술원, 1996.

이경자, 유아교육기관에 관한 학부모들의 기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서울:교문사, 1989.

이은희, 정보화 시대와 소비자(소비자 정보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994년도 총회 및 학술대회, 한국소비자 학회, 1994.

이학식 · 안광호, 소비자 행동:마케팅 전략적 접근, 서울:법문사, 1992.

장기인, 유치원 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전경임, A country's report on gifted education in Korea A paper presented at Bankok meeting, 1993.

전선옥, 유치원의 교사 · 유아 상호작용 및 물리적 환경의 질에 따른 유아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조경자,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어머니의 정보탐색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조석희, 미국 영재교육의 과거와 현재, 월간 꼬망쎬 12월호, 1998.
- 하종덕, 영재교사의 역할(영재아 지도교사 연수과정) CBS 영재교육학술원, 1996.
- 한국영재학회, 학교급별 영재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 (한국영재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 및 워크샵), 1997.
- 한정자, 유치원교육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2. 外 國 文 獻

- Harward Gardner, 중다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1983.
- James c. Stroud 아동탁아를 선택할 때 선택되는 질적 기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 1988
- Paldersn, 영재성의 정의(A definition of gifted and talented), 1985
- Renzulli. J, The enrichment triad model : A guide for developing defensible program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Mansfield Center, CT : Creative Learning Press, 1977.
- Robert J Sternberg 세 요소 이론(Triarchic Theory), 1986.
- Robert W. Fuqua, Childcare and Referral Programs and Parent's Search for Quality Childcare, 1991.
- Tannenbaum 타넨바움의 정의(Tannenbaum's Definition), 1983
- 미국, National State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on the gifted and talented,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Parent's Information Search about the Choice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Gifted Children

Do, Jung-Eun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 Information

Dept. of International Commerce &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Commerce & Inform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kind of information which can affect the customers and to analyse the factors and the results that can give an influence on their behavior in the process of selec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ir gifted children. So we'll know their problems of choosing the gifted educational programs and institutions, and search reasonal directions for education for the gifted children.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ow does the parents' behavioral characters appear when they choose a gifted educational institute?
2. How does satisfaction appear about the gifted educational institute?
3. How does recognition and satisfaction appear about the gifted educational institute's type?
4. How's the parents' acknowledgement about the quality of gifted educational institute programs?

The data collected by the study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χ^2 (chi-square) test methods for each category.

The summary of the result is as follows;

- (1) The parents choose the educational institution between 18 months and 40 months after birth of their children and send the children through the relatives and the neighborhoo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choice is reasonable educational program.
- (2) The parent's satisfaction for the institute depends on the variety of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programs.
- (3) The awareness level of parents in Kang-Nam and Kang-Dong for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gifted children is high. And most parents are satisfied with the institutions regardless of the awareness level.
- (4) The important requirements of teachers are professional knowledge and research activities. The desirable program should be directed for integrated education for a whole man that focuses on creativity and thinking power. In addition, the parents prefer small group-oriented teaching, opportunity for natural learning and sanitation furnishings for the children.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자녀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선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영재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해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되며 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영재교육의 기초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연구의 순수한 사용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정확히 응답해 주시면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9 년 2 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통상정보대학원 국제통상정보학과

연 구 자 : 도 정 은

1. 영재교육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아주 많이 ② 많이 ③ 조금 ④ 전혀 모름

2. 아동의 영재교육기관 선정은 언제 하였습니다습니까?

- ① 생후 18개월 ② 생후 18개월 ~ 40개월
③ 5세 ~ 7세 ④ 8세 이후 ⑤ 기타

3. 현재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은 어떻게 선택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이웃에 위치하여 ② 친지, 주위사람들의 소개로
③ 직장을 통해서 ④ 매스컴에 의해
⑤ 안내기관에 전화하여 ⑥ 영재교육기관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⑦ 전화번호부를 보고 ⑧ 기 타 ()

4. 현재 아동을 보내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 ① 위치가 편리해서(통학거리가 짧아서)
② 교육비가 적절해서
③ 교육시간이 적절해서
④ 원장과 교사의 자질이 우수해서
⑤ 영재교육기관의 시설과 설비가 좋아서
⑥ 영재교육프로그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⑦ 주위의 평판이 좋아서
⑧ 기 타 ()

5. 현재 부모님이 선택하신 자녀의 영재교육기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대단히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만족하지 못한다

6. 만약 자녀의 영재교육기관을 가장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에서입니까?

- ① 교육내용이 풍부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 ② 기관장(원장, 경영자), 교사진이 좋다
- ③ 한 학급당 인원 및 교사: 아동의 비율이 적절하다.
- ④ 시설교재 및 교구, 환경이 풍부하다
- ⑤ 교사의 열의 있는 수업전개

7. 만약 현재의 영재교육기관을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면에서입니까?

- ① 교육내용이 빈약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 ② 기관장(원장, 경영자), 교사진 등 인적자원이 부실하다
- ③ 한 학급당 인원이 너무 많거나 교사: 아동의 비율이 부실하다
- ④ 시설, 교재 및 교구, 환경이 열세하다

8. 만약 선택한 자녀의 영재교육기관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부모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 ① 교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② 기관장(원장, 경영자)과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③ 그만 보내겠다.
- ④ 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그대로 보내겠다.

9. 영재교육기관의 교사 자질 중에서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① 영재교육 및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학문적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 ② 교육경력이 풍부해야 한다.
- ③ 아이들을 사랑하고 편애하지 않아야 한다.
- ④ 관련서적 및 교육자료를 접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 ⑤ 수업능력에 있어서 수업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10. 영재교육기관의 기관장(원장, 경영자)의 자질 중에서 어떠한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재교육을 전공했는지에 여부 ② 풍부한 교육경력 ③ 덕망과 인품
- ④ 영재교육기관의 운영능력 및 지도력이 뛰어나
- ⑤ 건강한 교육관과 투철한 교육신념
- ⑥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풍부함

11. 영재교육 프로그램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어느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 ① 영재아동들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돕는 전인적 통합(인지, 정서, 언어, 신체, 사회성 등) 교육이어야 한다.
- ② 아동의 개별적인 흥미와 욕구에 따라 활동을 계획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어야 한다.
- ③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 외에 특기지도활동(수영, 무용, 음악, 미술, 외국어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
- ④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할 활동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⑤ 아동의 부족한 발달 면은 교사의 의도된 지도로 인해 보충되어야 한다.
- ⑥ 다양한 행사(발표회, 전시회, 운동회 등)를 통해 아동들에게 많은 경험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12. 영재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① 사고력 ② 과학 ③ 언어 ④ 수학

13. 영재교육 프로그램 적용 시에 아동의 교사에 대한 수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 ~ 2명 ② 3 ~ 4명 ③ 5 ~ 6명 ④ 7명 ~ 10명

14. 영재 교육기관의 교육 환경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실내, 실외 환경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매력적이고 넓어야 한다.
- ② 실내환경은 다양하고 충분한 공간의 놀이기구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수영장, 어학실, 체육실, 강당 등의 다양한 특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아동들이 자연물을 접할 수 있는 자연학습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15. 아동들의 영양 및 건강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아동 가까이 마실 물, 화장실, 싱크대 등이 있어야 한다.
- ② 간식 및 식사의 식단내용을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 ④ 아동들의 건강과 관리를 위해 의료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
- ⑤ 정기적으로 유아들의 건강체크가 있어야 한다.

16.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영재교육기관에 참여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① 간식준비, 수업의 보조역할 등 부모 참여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 ② 수업참관, 부모들이 알아야할 중요한 안내모임등 제한된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
- ③ 가정통신 등의 유인물, 전화연락 등으로 대신한다.
- ④ 전적으로 교사에게 일임한다.

17. 영재 프로그램이 아동의 어떤 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과제 집중력 ② 높은 지능지수 ③ 창의력 ④ 사회성

18. 영재 프로그램 중 과학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중요함 ② 중요함 ③ 보통임 ④ 전혀 중요치 않음

19. 과학 프로그램으로 가장 적절한 수업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한 원리 이해 교육
② 원리를 알게 하는 결과중심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
③ 시청각 교육
④ ①,②,③을 모두 통합한 교육

20. 영재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아동의 독특한 능력과 개인차를 줄일 수 있는 소그룹 지도
② 다양한 교구나 교재를 이용한 지도
③ 같은 연령,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로 짜여진 그룹지도
④ 아동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지도

< 기 초 조 사 >

* 다음은 부모님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사항에 (☒) 해 주십시오.

1) 부모님의 성별 : () 남, () 여

2) 부모님의 학력 : () 고졸이하, () 대졸, () 대학원졸

3) 현재 영재교육기관에 보내고 있는 자녀나이 : 만 _____ 세

4) 자녀의 출생 순위 : () 첫째, () 둘째, () 셋째이후

5) 자녀의 성별 : () 남, () 여